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지역 여성의 영아영양법에 관한 실태조사

이장순 · 고정순 · 김효선
제주산업정보대학

A Study on Infant Feeding Practices in Seogyopo Area and South Chejukun Area

Jang-Soon Lee, Jung-Soon Ko and Hyo-Sun Kim

Dept. of Nutrition, Cheju College of Technology, Cheju, Cheju-Do 690-714,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the feeding methods in Seogyopo city and south Chejukun area. As random sample for this study, a total of 355 mothers having babies under the age of 3 were surveyed. 54.5% of babies surveyed were boys, 45.5% were girls. Infants' colostrum intakes in Seogyopo city and south Chejukun area were 69.9% and 63.1%, respectively. Mother's education level affected colostrum intakes significantly. Baby's sex, birth weight and mother's job affected the infant's feeding methods. The case of girl, normal birth weight and mother's employment showed high percentage of bottle feeding. Bottle feeding was higher in Seogyopo, small city than in south Chejugun, the country. Most of reasons for bottle feeding or mixed feeding was the lack of breast milk. The highest percentage of recommenders for breast feeding were baby's mother in Seogyopo city area and were baby's grandmother in south Chejugun area. In Seogyopo city area, mother's education level did not affect the infant's feeding methods but in south Chejukun area, mother's education level affected significantly.

Key words : infant feeding,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서론

출생 후 1년간 영아 섭식 패턴은 영아기와 그 이후의 성장과 발달뿐 아니라 질병의 이환율과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강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1,2)}. 따라서 영아의 영양공급 목적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함께 성년 이후의 관상심장병, 암, 고혈압 및 골다공증과 같은 퇴행성 질병의 발생 및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모유는 유아에게 있어서 거의 완전한 식품으로써, 대략 만 5개월 이전의 영아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성분의 구성면에서도 우수하고 질병^{3,4)}과 알레르기 발생을 감소^{5,6)}시키며, 면역작용^{7,8)} 및 항감염작용^{9,10)}이 있고,

비만을 감소¹¹⁾시키며 아토피성 질환¹²⁾과 중이염^{13,14)}을 예방하고 영아의 턱뼈와 치아의 발육을 촉진시키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근래 세계적으로 경제부흥 및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이 급증하고 혁신적인 인공영양법이 개발됨으로써, 모유영양법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여성들의 모유수유의 불편함, 수유실패에 대한 공포, 미용에 대한 염려 등으로 모유수유는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모유수유의 감소경향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연합아동기금에서는 세계적 규모로 모유영양을 권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 모유영양에 대한 5개 항목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영유아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활동을 하고 모유대체식품과 보충식품의

* Corresponding author : Jang-Soon Lee

정당한 판매와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다¹¹⁾.

우리나라의 모유영양실태는 1960년대 후반까지는 모유영양이 도시에서는 60% 이상을, 농촌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농촌에서 80%, 도시에서 50%까지 감소하였으며¹⁵⁾ 1991년 서울에서의 모유영양 비율은 29.1%¹¹⁾, 속초에서는 40%, 1994년 춘천에서는 17.8%, 광주에서는 35.6%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모유영양의 비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모유영양 비율이 계속 감소를 보여, 1970년에는 10% 수준까지 감소하다가 1985년에는 35%¹⁷⁾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도 모유영양이 1970년대 초에는 15%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60%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스웨덴, 헝가리, 스위스 및 핀란드의 경우 90% 이상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보이고 있다¹⁷⁾.

영아영양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지역, 어머니의 교육정도, 연령 및 직업, 아기의 성별, 출생시의 체중, 출생순위, 분만장소, 만출방법 및 보건의료서비스 시설이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¹¹⁾.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한국 여성의 수유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종합해 보면 아직도 모유수유의 감소추세가 예상되며, 그 원인으로 모유영양에 대한 수유부의 인식부족, 수유지식 부족, 수유방법 및 태도의 미확립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과 인접해 있는 소도시인 서귀포시 지역과 농촌지역인 남제주군지역 여성의 수유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기측 요인, 어머니측 요인 및 분만종류에 따른 요인별로 규명함으로써 영아영양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모유영양의 권장 및 영양교육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현재 3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미만의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각 지역에 배부한 설문지 500부 중 자료처리가 가능한 서귀포시 지역 설문지 206부와 남제주군 지역 설문지 14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총 15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유아의 출생시

의 체중, 성별, 출생순위 등에 대한 6문항과 어머니의 직업 유무, 학력, 수유방법 등에 관한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자기 기입법에 의해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 평균표준편차,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으며, 여러 요인간 유의성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생활환경

유아의 연령은 Table 1에서와 같이 생후 12개월 이하가 서귀포시 지역 32.1%, 남제주군 지역 36.7%였으며, 생후 13~24개월까지가 서귀포시 지역 43.4%, 남제주군 지역 50.0%, 생후 25~36개월은 서귀포시 지역 24.5%, 남제주군 지역 13.3%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유아의 성별 분포는 서귀포시 지역은 남아의 비율이 (62.3%), 남제주군 지역은 여아의 비율(53.3%)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남아가 54.5%, 여아는 45.5%로 남아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출생순서는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지역 모두 첫째아이가 평균 60.9%로 가장 많았으며 셋째 이상의 출생아도 7.0% 있었다.

출생시의 체중은 서귀포시 지역의 유아의 경우, 남아는 평균 3.39kg, 여아는 3.38kg (전체평균 3.34kg)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Seogyopo city area	South Chejukun area	Total
Age (months)	1~6	23(11.3)	20(13.3)	43(12.3)
	7~12	43(20.8)	35(23.4)	78(22.0)
	13~18	27(13.2)	40(26.7)	67(20.0)
	19~24	63(30.2)	34(23.3)	97(26.8)
	25~36	50(24.5)	20(13.3)	70(18.9)
Sex	Male	128(62.3)	70(46.7)	198(54.5)
	Femal	78(37.7)	79(53.3)	157(45.5)
Birth order	1st	117(56.6)	99(66.4)	216(60.9)
	2nd	74(35.9)	40(26.9)	114(32.1)
	3rd<	15(7.5)	10(6.7)	25(7.0)
Total		206(63.8)	149(36.2)	355(100)

Table 2. Birth weight of subjects

		Seogyopo city area	South Chejukun area	Means
Birth weight (kg)	Male	3.39	3.29	3.34
	Female	3.38	3.32	3.35

었으며 남제주군 지역의 경우는 남아 3.29kg, 여아 3.32kg(전체 3.35kg)으로 여아와 남아의 평균 체중은 유의차가 거의 없었으나, 남제주군 지역의 신생아가 서귀포시 지역의 신생아보다 출생시 체중이 약간 낮았다.

2. 조사대상 양육인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는 대학 이상 졸업자가 47.1%, 고등학교 졸업자가 51.0%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남제주군 지역인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80%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도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와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47.1%와 52.9%를 나타낸 반면, 남제주군 지역의 경우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33.4%로 직업이 없는 어머니(66.6%)에 비하여 약 절반 가량 적어 지역에 따른 차이가 매우 컸다.

Table 3. Mother factors affecting feeding methods N(%)

	Seogyopo city area	South Chejukun area	Total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4(1.9)	5(3.4)	9(2.5)
Middle school	0(0.0)	0(0.0)	0(0.0)
High school	105(51.0)	119(79.9)	224(63.1)
College <	97(47.2)	25(16.7)	122(34.4)
$\chi^2 = 35.234, \quad p < 0.00$			
Job			
Yes	97(47.2)	50(33.4)	147(40.3)
No	109(52.9)	99(66.6)	208(59.7)
$\chi^2 = 6.524, \quad p < 0.11$			

3. 수유현황

1) 신생아의 초유섭취 실태

우유 및 성숙유에 비하여 면역성분이 많은 초유의 섭취상태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지역의 초유섭취 비율은 69.9%와 63.1%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송¹⁸⁾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생아 초유섭취실태는 농촌지역의 경우는 94.1%, 도시지역의 경우는 81.8%라고 발표하였으며 도시에서의 초유섭취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으나 소도시 지역인 서귀포시와 농촌지역인 남제주군 지역에서의 초유 섭취비율이 이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 것은 특이할 만하다. 그러나 1994년 노¹⁹⁾는 광주지역 영아의 초유 섭취율은 송¹⁸⁾의 조사결과보다 훨씬 낮은 68.3%로 다른 지역보다 섭취율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조사 결과는 광주지역의 초유 섭취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초유섭취 실태(Table 5)는 학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1년 송¹⁸⁾의 우리나라 영아의 초유섭취실태가 학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노¹⁹⁾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초유 수유 실시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의 학력과 초유 수유 실시는 관련이 있으며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0).

Table 4. Infant's colostrum intake by areas N(%)

Colostrum intake	Seogyopo city area	South Chejukun area
Yes	114 (69.9)	94 (63.1)
No	62 (30.1)	55 (36.9)
$\chi^2 = 1.818, \quad p < 0.178$		

Table 5. Infant's colostrum intake by mother's education level N(%)

Colostrum intake	Yes	No
High school >	202(56.9)	153(43.1)
Collage <	282(79.4)	73(20.6)
$\chi^2 = 41.542, \quad p < 0.000$		

2) 수유방법

유아의 성별, 출생시 체중 등과 같은 유아의 인자에 따른 수유방법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서는 출생시 성별에 따른 수유방법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11,19)}. 그러나 본 조사결과는 성별에 따라 수유방법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000)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지역 모두에서 남아의 경우 인공영양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서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출생시의 체중과 수유방법의 관계를 보면 남제주군 지역의 경우는 다른 연구자들^{19,20)}과 같은 결과로 3.1~3.5kg의 정상체중으로 출생한 영아의 경우 모유 섭취율이 높았으며, 출생시 체중이 저조하거나 과잉인 편에서는 인공영양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는 정상체중으로 출생한 영아에게도 인공 및 혼합영양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모유영양에 의한 수유가 영아의 요인에 의해서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모유영양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7은 어머니의 직업, 학력에 따른 수유방법을 조사한 결과이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00) 직업이 있는 경우 모유 수유 비율은 매우 떨어졌으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의 빈도가 인공영양과 거의 비슷하였다. 이 결과는 황¹¹⁾의 서울지역 여성의 영아 영양법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어, 산전에 모유영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양교육의 실시나 성공적으로 모유를 완료한 사람들의 체험담, 모유영양 권장에 대한 병원 측과 분유회사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에 따른 수유방법의 차이를 보면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는 학력에 따른 차이없이 인공영양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고졸이 대졸 이상보다 모유영양이나 인공영양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최²¹⁾와 손 등²⁰⁾도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영양 비율이 낮다고 보고하여 본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Formon²²⁾은 미국지역의 수유경향에 대한 연구에서 '70년대 이후 모유영양 비율의 증가는 교육정도가 높은 군에서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모유영양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온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군에서 교육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까닭으로 생각되어지며, 아직까지도 고학력 군에서 모유수유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강화를 통하여 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른 수유방법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p<0.001) 모유영양의 경우보다 인공영양의 경우 서귀포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도시 지역인 서귀포와 농촌지역인 남제주군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모유영양의 경우는 서귀포와 남제주군 지역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서귀포 지역의 모유영양의 비율은 20.9%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손 등²⁰⁾의 16.1% 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노 등¹⁹⁾의 광주지역 모유영양비율인 35.6%, 김¹⁵⁾이 속초에서 실시한 모유영양비율 40.0%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인공영

Table 6. Feeding methods by babies' sex and birth weight

N(%)

Factors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Mixed feeding		
	A area*	B area*	A area	B area	A area	B area	
Sex	Male	19(9.4)	20(13.3)	70(34.0)	45(30.0)	39(18.9)	5(3.3)
	Female	23(11.3)	35(23.4)	35(17.0)	25(16.7)	19(9.4)	20(13.3)
	Total	42(20.7)	55(36.7)	105(51.0)	70(46.7)	58(28.3)	25(16.6)
		$\chi^2 = 27.642,$		$p < 0.000$			
Birth weight (kg)	3.0 >	12(5.7)	15(10.0)	35(16.9)	23(15.7)	12(5.7)	0(0)
	3.1~3.5	19(9.4)	35(23.3)	50(24.4)	25(16.7)	28(13.2)	15(10.0)
	3.6 <	12(5.7)	5(3.3)	19(9.4)	21(13.3)	19(9.4)	10(6.7)
	Total	43(27.7)	55(36.6)	104(50.7)	69(45.7)	59(28.3)	25(16.7)
		$\chi^2 = 15.295,$		$p < 0.004$			

*A : Seogyopo city area, **B : South Chejukun area

Table 7. Feeding methods by factors related to mother's circumstances

N(%)

Factors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Mixed feeding		
	A area*	B area**	A area	B area	A area	B area	
Job	Yes	8(3.7)	10(6.7)	66(32.1)	25(16.7)	23(11.3)	15(10.0)
	No	35(17.0)	45(30.3)	39(18.9)	45(30.0)	35(17.0)	9(6.6)
		$\chi^2 = 217.22,$		$p<0.0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4(1.9)	0(0)	0(0)	5(3.3)	0(0)	0(0)
	High school	19(9.4)	45(30.0)	54(26.4)	55(36.7)	31(15.1)	20(13.3)
	College<	19(9.4)	10(6.7)	51(24.6)	10(6.7)	28(13.2)	4(3.3)
		$\chi^2 = 4.323,$		$p<0.364$			
Area	Seogyopo city	43(20.9)		104(50.5)		59(28.6)	
	South Chejukun	55(36.9)		69(46.3)		25(16.8)	
		$\chi^2 = 13.508,$		$p<0.001$			

*A : Seogyopo city area, **B : South Chejukun area.

Table 8. Feeding methods by labor process

N(%)

Labor process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Mixed feeding	
	A area*	B area**	A area	B area	A area	B area
Spontaneous	31(15.0)	40(26.8)	74(36.0)	25(16.8)	19(9.2)	10(6.7)
Artificial	8(3.9)	14(9.4)	31(15.0)	45(30.2)	43(20.9)	15(10.1)
Total	39(18.9)	54(36.2)	105(51.0)	70(47.0)	62(30.1)	25(16.8)

*A : Seogyopo city area, **B : South Chejukun area.

양에 비하여 모유영양의 우수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분만 종류에 따른 수유 방법을 보면(Table 8) 자연분만을 한 경우 농촌지역인 남제주군에서는 인공영양 보다는 모유영양을 하는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데 비하여 소도시 지역인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자연분만을 한 경우에도 인공영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평균 학력의 증가와 함께 모유영양은 감소추세에 있고, 어머니의 평균학력이 낮은 경우가 모유 수유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0,20)}, 소도시 지역인 서귀포 지역도 농촌지역인 남제주군 지역보다 고학력자가 많기(Table 7 참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공분만을 한 경우보다 자연분만을 한 경우가 농촌지역인 남제주군 지역보다 소도시 지역인 서귀포시 지역에서 더 많았다. 일반적으로 인공분만의 경우는 분만 후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 하며 그 동안 아기와 어머니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인공영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분만의 인공영양 비율

이 높게 나타나지만 자연분만의 경우는 가계의 경제 수준에 따라 인공영양이나 모유영양을 실시하는 경우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분만 방법에 관계없이 인공영양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1,18)}, 본 조사에서 서귀포시 지역의 인공영양율이 남제주군 지역보다 높은 것은 서귀포시 지역은 소도시 지역이면서도 감귤 농사를 짓는 가정이 매우 많은데 비하여 남제주군 지역은 주로 밭농사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두 지역의 소득상의 차이도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인공 및 혼합영양을 하게 된 이유(Table 9)는 젖이 모자라서가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지역 모두 37.8%와 35.7%로 가장 많이 답변을 하였다. Worthington²¹⁾은 모유분비가 부족한 이유가 실제로 모유가 부족한 것보다는 모유를 성공적으로 수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유의 생리, 모유분비에 관계하는 호르몬기전, 특히 유선의 생리를 잘 이해시킴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Table 9. Reasons for bottle feeding or mixed feeding

	N(%)	
	Seogyopo city area	South Chejukun area
Not enough breast milk	78(37.8)	53(35.7)
Baby's health	6(2.7)	31(21.4)
Mother's health	50(24.4)	31(21.4)
Because of mother's job	44(21.6)	21(14.4)
Convenience	11(5.4)	0(0.0)
Baby's refused breast milk	11(5.4)	0(0.0)
Others	6(2.7)	10(7.1)

Table 10. Recommenders for breast feeding

	N(%)	
	Seogyopo city area	South Chejukun area
Baby's grandmother	52(25.0)	68(45.5)
Baby's father	0(0.0)	0(0.0)
Doctor	0(0.0)	13(9.0)
Baby's mother	103(50.0)	27(18.2)
Neighborhood	51(25.0)	41(27.3)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은 누구든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주어 어머니들의 모유의 질, 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일도 중요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엄마의 건강상의 이유, 엄마의 직업 때문 등이 높았고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아이나 엄마의 건강상의 이유가 매우 높았다. 이는 남제주군 지역은 농촌이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보다 발일을 돕는 전업주부가 많기 때문에 직업상의 이유 보다는 아이나 엄마의 건강상의 이유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실제로 아이나 엄마가 모유수유를 못할 만큼 건강이 나쁜 경우는 매우 드문 점을 감안할 경우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 - 모유수유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교육이나 모유수유의 장점 등을 강조하는 교육 및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신 중 모유영양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조언한 사람은 소도시인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않고 어머니 자신이 결정하였다고 답한 경우가 50%나 되었으나 농촌지역인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아이의 할머니의 조언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는 핵가족화로 어른을 모시지 않고 살고 있는 가계가 많은데 비하여 농촌인 남

제주군 지역은 아직도 어른의 영향력이 큰 대가족 중심의 가족 구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사 조언을 받았다는 사람이 매우 적었는데 1994년 광주지역 영유아 영양실태¹⁹⁾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국민영양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할 의사나 영양사, 간호사들의 역할이 여전히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학과에서 모유영양의 우수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산모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유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은 3세 이하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 서귀포시 지역 206명과 남제주군 지역 149명이었다. 조사대상아 중 남아는 54.4%, 여아는 45.5%로 남아의 비율이 높았으며, 출생시의 체중은 평균 약 3.34kg으로 여아와 남아의 유의차가 거의 없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졸 이상이었으며,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는 48.1%, 남제주군 지역은 43.4%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초유 수유 비율은 서귀포시 지역 69.9%, 남제주군 지역 63.1%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초유 수유 비율이 높았다. 수유방법은 아기의 성별, 출생시의 체중, 어머니의 직업과 어머니의 학력과 유의성이 있었는데 여아이며, 출생시의 체중이 정상체중이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인공수유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과 수유방법의 관계를 보면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는 학력과 수유방법과의 유의성이 낮았으나, 남제주군인 경우 고졸이 대졸 이상에 비해 모유수유 비율이 높았다. 지역에 따른 수유방법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p<0.001) 소도시인 서귀포시 지역은 인공영양이 농촌지역인 남제주군은 모유영양 비율이 높았다. 인공 및 혼합영양을 하게 된 이유로는 젖이 모자라서가 가장 많았으며, 모유 영양을 원하는 사람으로는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어머니 자신이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아이의 할머니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서귀포시 지역은 인공분만 비율이 남제주군 지역보다 높았으며 인공 분만의 경우 모유 섭취율은 낮았다.

참고문헌

1. Wright, A., Holberg, C. M., and Taussig, L. : The group health medical associates pediatricians. Infant-feed practices among middle-class anglos and hispanics. *Pediatr.*, 82, 496~503(1988).
2. Popkin, B., Akin, J., Black, R., Briscoe, J., and Fliega, W. : Breast-feeding and diarrheal morbidity. *Pediatr.*, 86, 874~882(1990).
3. Fermon, S., Thomas, L., Ziegler, E., and Leonard, M. : Food consumption and growth of normal infants fed milk-based formulas. *Acta Paediatr. Scand(Suppl)*, 23, 1~24(1971).
4. Axelsson, N., Borulf, S., Righard, L., and Råihä, N. : Protein and energy intake during weaning : I. Effects on growth. *Acta Paediatr Scand.*, 76, 321~327(1987).
5. 설민영, 김을상, 금혜경 : 모유영양아의 수유기간별 모유 섭취량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6, 414~422(1993).
6. 임현숙, 이정아, 허영란, 이종임 : 모유영양아와 인공영양아의 에너지, 단백질, 지방 및 유당섭취. *한국영양학회지*, 26, 325~337(1993).
7. 조금호, 문진, 금혜경, 김을상 : 수유기간별 영아의 모유 섭취량 및 Na, K의 섭취량. *한국영양학회지*, 28, 612~619(1995).
8. 이영남, 문진, 설민영, 김을상 : 수유기간별 모유 중 단백질 분비량과 영아의 단백질 섭취량. *한국영양학회지*, 28, 782~790(1995).
9. 이현금, 최진영, 김철규, 한동관, 현우, 이동기 : 한국어린이의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소아과*, 21, 664~672(1978).
10. 최진영 :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유의 실태와 문제점. *소아과*, 23, 3~61(1980).
11. 이연숙, 황계순 : 서울지역 여성의 영양법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 97~103(1992).
12. 김철규 : 우리나라 시판이유식의 실태에 관한 연구. *소아과*, 23, 41~61(1980).
13. 민혜성 : 농촌 이유 유아의 이유실태조사. *최신의학*, 23, 100~105(1980).
14. 장유경, 김상연, 원선임, 오은주 : 이유형태가 유아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 169~181(1993).
15. 이정실, 김을상 : 속초시 영유아의 이유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4, 467~479(1994).
16. Formon, S. J. : Reflections on infant feeding in the 1970s and 1980s. *Am. J. Clin. Nutr.*, 46, 171~182(1987).
17. WHO : World Health Statics(1982).
18. 이정수, 이상호, 주진순 : 강원도 춘천지역 유아의 이유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7, 272~280(1994).
19. 노희경 : 광주지역 영유아의 영양실태. *한국영양식량학회지*, 23, 48~54(1994).
20. 손경희, 윤선, 이영미, 민성희, 전주혜 :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유아의 수유 및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 309~321(1992).
21. Worthington, R.B.S. : Lactation and human milk. Nutrition in pregnancy and lactation, Times Mirror and Mosby Co., p.244(1989).

(1999년 8월 31일 접수)